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道, 국비 확보 '정조준'

조봉업 행정부지사
기획재정부 찾아
尹정부 전북 공약
예타 진행 사업 등
주요 현안 반영 건의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15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한영호 사회예산심의관에 국가예산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5월말 각 부처에서 예산안이 제출돼 1차 심의가 진행 중인 기재부를 찾아가 전북지역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위한 설득 활동을 본격 개시했다.

15일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기재부 김완섭 예산실장,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한영호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핵심 리인을 차례로 만나 윤 대통령의 약속인 전북 공약사업과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먼저 윤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인 △국립 전북스포츠포럼합동원 건설,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중자 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고 내년도 국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조 부지사는 국가대표 선수촌이 북부 지역에 치우친 점을 거론하며, 중부권 이남 지역을 아우르고 유소년 꿈나무 및 중고등 선수들의 집중 훈련을 위해서는 '국립 전북스포츠포럼합동원 건설'이 필요하며 기본구상 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태권도의 세계화와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교육을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된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이 정부안에 담기지 않음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농업의 반도체인 종자산업의 혁신적인 육성을 위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로 타당성 연구용역비 반영을 건의하며 김제공항 부지의 신속한 관리전환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예타 진행 중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군산항 제2준설도 투기장 건설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함께 정부예산안에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은 청정수소 인증, 발전구배의무화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제성 확보가 뒷받침되는 등 조속한 예타 통과와 정부안에 5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새만금 내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 구축이 시급함을 피력하며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20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군산항 제2준설도 투기장 건설'은 현 투기장(급란도)이 이미 포화상태로 '25년에는 수도 능력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기 구축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부처안에 과소·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도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물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이 전북 익산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안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 7억원 반영을 건의하고, 주요 해양·항만 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비응한 어항구 확장 개발, 격포항 국가어항 확장 개발 구시포항 국가어항 준설도 투기장 건설 등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은 사업목표인 2024년 개통을 위해 대규모

국비 투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 5,000억원 반영을 건의하고, 동화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동화농민운동 성역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고창 동화농민운동 성지화 사업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의혁명전당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각 30억원, 17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북 신산업 지도 구축을 위해 △해양 무인시스템 통합 실증시험 평가 기술개발 40억원,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45억원 반영을 건의하고, 새만금 수질개선과 혁신도시 약취개선을 위한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안축사 매입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내년도 축사 매입(500개)과 생태복원(500개) 180억원 반영도 협조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기재부 대응 체계로 전환하여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정부예산안 최대 확보를 위해 도시군-정치권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먼저 다음 주부터 시장·군수 당선인과 지역국회의원과의 국가예산 간담회를 개최해 시·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가예산 확보전략을 논의하는 등 변화된 방식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민선 8기 공식 출범에 앞서 도시군-지역국회의원과의 공조 체계를 다지고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부안 최대 반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김경수 기자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8기 경제부지사·정무수석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민선8기 정무부지사에 김종훈 전 차관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국내 최고 농생명 전문가"

정무수석에 김광수 전 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정무(경제)부지사와 정무수석에 각각 김종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55)과 김광수 전 국회의원(64)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당선인은 "인사가 정책이다"라는 철학과 함께 "전북발전에 필요하다면 출신에 상관없이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전북도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모든 인사의 기준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전문성"이라며 인사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기존의 정무특별과와 정무부지사의 명칭은 김 당선인의 공약 이행의지에 따라 조례를 변경해 각각 경제부지사와 정무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김종훈 전 농림부 차관

의 경제 부지사 내정에 김 내정자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전라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협동조합 과장·기획 재정담당관·대변인·농업정책국장·차관보·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으며 경제부지사는 자신의 여러 공약 중 전라북도를 세계적 인 농생명 산업의 메카로 부흥하겠다는 의지로 30년간 농식품부에서 관련 업무를 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농생명 산업 전문가라고 김종훈 내정자를 치켜세우며 소개했다.

김종훈 내정자는 "30년간 중앙 부처에서 해왔던 일을 이제는 고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며 소감을 말했다.

이어 김광수 전 국회의원의 정무수석 내정에는 정치권과의 협력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위해 김 내정자를 '격'에 어울리지 않는 자리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어렵게 승낙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김 내정자는 전주시의회 의원, 전북도의회 의장에 이어 제20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으며 전북 정치권에 있어 김관영 당선인의 도청과 도의회 관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은 조례를 통해 변경하는 경제 부지사의 이름은 "자신이 선거기간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경제 도지사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며 "앞으로 도청의 경제 관련 부서일을 경제 부지사가 도의회 관련 일은 정무수석이 관해서 분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머지 자리 인선 또한 6월 20일 이전에 내정자들을 발표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당선인은 "전라북도 사상 처음으로 도지사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할 수도 있으며 더 노력하고 보강해 도민여러분의 기대외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며 "100%는 실행할 수 없지만, 99%까지 실행력을 높여내겠다"고 자신의 도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장수군

#맛있다!

#다섯가지맛

오! 아름다운 자여!

장수오미자

#오미자와인

#장수물

#오미자주

www.장수물.com

장수물